

Vol.336 November + December

세 아 가 조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진정한 장수는 거대한 적 앞에서도 용맹을 잃지 않으며,
사지(死地)에 몰린 때에도 살아날 길을 찾아낸다.
흔들림 없는 눈빛과 강한 정신으로 세아베스탈의 승리와 위용을 위해
모든 지혜와 용기를 아낌없이 쏟는 세아의 영웅,
바로 권정태 차장의 모습이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데 사라사테는
감미로운 음색과 화려한 기교의 연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곤 했습니다.
한 음악평론가가 사라사테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천재입니다.”
그 말에 사라사테는 발끈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천재라고요? 저는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천재라니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타고난 천재는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한 사람만이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Vol. 336
NOVEMBER | DECEMBER 2011

Contents

Special Theme	02	프롤로그	으뜸
	04	깊은생각 열린마음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
	06	why&how	바뀌야 할 것은 전략이 아니라 습관이다
	08	세아의 생각	Global Top Brand SeAH
	10	세아의 노하우맨	내 생애 최고의 순간 “그땐 그랬지”
Story in SeAH	12	SeAH Inside	한국번디 인도 가전부품 공급업체 인수 세아제강·세아에샵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14	SeAH Special Report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 현장 2011 하반기 채용설명회 4기 챌린지 리더 워크숍 모바일 EGS 오픈
	24	Open Your Team	세아에샵 품질경영실
	28	Talk by Specialist	세아베스틸 재무팀 권정태 차장
Happy in SeAH	32	와이키키 패밀리	세아메탈 훈훈한 3인방 송년파티 현장
	36	행복한 나들이	세아로지스 국제물류팀
	40	세아가 응원합니다	강남도시가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42	세아뉴스	
	47	사우동정	

〈세아가족〉 통권 336호 2011년 11+12월호

발행일 2011년 12월 12일 |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그룹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 홈페이지 www.seah.co.kr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3783-8163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 표지촬영 다뷰스튜디오 02-766-8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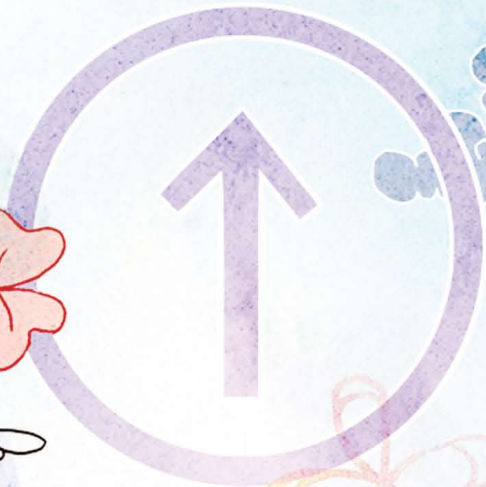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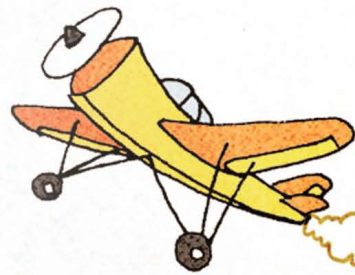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으뜸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일컬어
순우리말로 '으뜸'이라고 부릅니다.
으뜸의 또 다른 뜻은
'기본이나 근간이 되는 뜻'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힘을 가득 채워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세아인의 기슭에
당당하게 새겨진 이름,
바로 으뜸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 최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글 ● 편집실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

한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것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다. 조선시대 서예가 양사언의 시조처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뾰’인 것이다. 한 걸음 씩 오르면 정상에 오르기 마련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상에 선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평범하니까’, ‘나는 게을러서’와 같이 자신의 결점이나 가정환경 등을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곤 한다. 반대로 약점을 장점으로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용기’였다. 어떠한 장벽도 용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약점을 이겨낸 사람에게 찾아오는 행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말이면 화제에 오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시청자들을 울리는 〈나는 가수다〉. 출연 가수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가수 김범수의 노래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외모였다. 데뷔 앨범 때부터 ‘얼굴 없는 가수’라 불리며 방송활동보다 주로 공연 위주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는 뉴스에 출연할 때에도 옆모습 인터뷰를 했다는 일화마저 있다. 그러나 그 약점은 노래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약점에 불과했다. 〈나는 가수다〉를 통해 재조명 받은 그의 가창력과 카리스마는 제2의 전성기를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경우, 그 화려한 호칭에 걸맞지 않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다. 이후 많은 실패에도 실망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는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9,000번의 슛을 실패했고, 300 게임을 졌다. 어떤 게임은 마지막 찬스에서 내가 슛을 넣기만 하면 이길 수 있었지만 26개나 실패했다. 그러나 대부분 승리로 이끌었다. 왜냐하면 늘 승리를 꿈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최고의 자리는 자신의 약점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단단히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끈기가 가져온 기회

기업의 경우는 어떠할까? 1976년 4월 1일, 부모님의 차고 안에서 두 청년이 회사를 설립했고, 당시로서는 아무도 필요하다고 생각지 못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냈다. 이후 만들어낸 매킨토시의 성공에 힘입어 후속작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그러나 판매부진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1998년 획기적인 디자인의 아이맥을 출시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들은 바로 전 세계의 소비자와 경쟁사들을 쥐락펴락했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다.

지금이야 물을 사서 마시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최초로 돈을 주고 물을 사 마시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은 에비앙의 창업주다. 처음 생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는 몇 번의 도전 끝에 투자자를 찾았고, 결국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생수회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생은 종종 마라톤에 비유되곤 한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승점까지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극복하는 끈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빠른 성공은 빠른 실패를 가져올 뿐이다. 지름길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사실이다.



‘습관이란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고 굳어진 행동’이나 ‘치우쳐 고치기 어렵게 된 성질’을 말한다. 몸에 밴 작은 습관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조직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글 ● 전옥표 <이기는 습관> 저자

승자가 되는 이기는 습관 바꿔야 할 것은 전략이 아니라 습관이다

동사형 조직이 되어, 총알처럼 움직여라

‘움직이는 조직’을 만드는 리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실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그것을 실행할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 쉬운 말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아무리 많은 전략과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저 밑바닥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1등 조직, 1등 인재의 특징은 구호나 슬로건보다 창의적 실행력을 가장 우선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실행력’이란 단순한 움직임(moving)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목적도 체계도 없이 공연히 분주하기만 하고, 진정한 성과와는 거리가 먼 일에 매달리느라 밤을 새고, 쓸데없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머리를 쓰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진정한 실행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지가 어디이며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참다운 실행력이다. 이러한 인식이 공유된 후 전 구성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서 창의적 실행력을 실행한다면,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는 일을 재구성해보자.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과업을 세분화하고 공연히 분주한 일들은 과감히 제거해 버리자. 그리고 최고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하도록 하자.



창의적 실행력의 첫 번째 함: 고객에 집중하기, 체화된 마케팅적 사고

모든 기업의 목표는 동일하다. 많이 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고객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고객’에 집중해서 생각하면 해답은 간단하다. 즉 “어떻게 해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고객에게 우리 상품을 잘 알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되는가? 이 뻔한 사실을 많은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현장에서선 망각해버리고 만다. “어떻게 해야 많이 팔까?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까?”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 실행력의 두 번째 함: 창조적 고통을 즐긴다, 프로 사관학교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 세상은 절대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저 남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남보다 좀 더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그 선에서 멈추는가? 남들도 그 선에서 멈출 것이다. 남들보다 약간의 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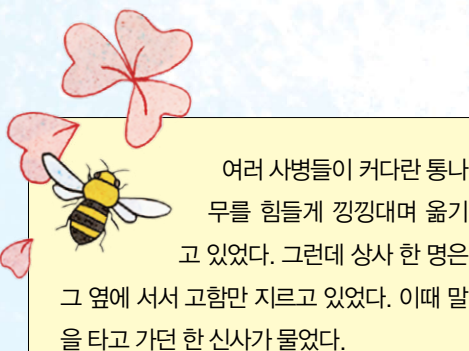
로움이 추가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남들보다 10분만 더, 1미터만 더 달려보라. 당신이 힘들 때 그들도 힘들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멈출 때 조금만 더 노력해보라. 당신은 1%의 프리미엄으로 100%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뼘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커브를 바꾼다.

창의적 실행력의 세 번째 함: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화한다, 자독한 프로세스

이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움직임의 이정표인 프로세스, 룰,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되어 있다면,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또 어떤 위기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최근 들어 창의력이나 자율이나 하는 말들이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대변하는 말처럼 쓰이고 있다. 그러나 창의와 방만, 자율과 방종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규율이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고, 책임이 없는 창의는 방만함에 불과하다. 비록 종업원 두셋에 불과한 구멍가게라 할지라도 질서와 책임이 존재하지 않고는 금세 망하고 만다. 자율적 분위기에서도 적절한 프로세스와 규범의 구축되어야만 조직의 성공이 달성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창의적 실행력의 네 번째 함: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집요한 실행력

앞에서 여러 가지 ‘이기는 습관’을 이야기 했지만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 ‘집요함’이라는 녀석이 인생의 숨바꼭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진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풍경과 똑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전혀 다른 산출물(out-put)을 만들어낸다. 부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집요한 만큼 보이는’ 삶의 이 끈질긴 법칙을 꼭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24시간은 모두 동일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50%만 향유하는 사람이 있고, 300%, 500% 향유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후자의 삶은 객관적인 평가나 보상을 넘어서 그 삶의 주인인 본인에게도 너무나 짜릿하고 잊을 수 없는 히스토리로 남게 될 것이다.



여러 사병들이 커다란 통나무를 힘들게 깎고대며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상사 한 명은 그 옆에 서서 고함만 지르고 있었다. 이때 말을 타고 가던 한 신사가 물었다.

“상사님, 당신은 왜 함께 통나무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이 물음에 상사는 “나는 이 사병들을 감독하는 상사니까요.”라고 대답했다. 신사는 말없이 말에서 내리더니 웃옷을 벗고 사병들과 함께 열심히 통나무를 나르기 시작했다. 일이 끝나자 그는 서둘러 가던 길을 재촉하며 이렇게 말했다.

“상사! 앞으로 통나무를 나를 일이 있으면 총사령관을 부르게!”

병사들은 그제야 자기들과 함께 통나무를 나른 신사가 미군의 총사령관 워싱턴 장군임을 알았다.

Global Top Brand SeAH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 세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사람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세아가족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세아표 세계지도, 앞으로 지구상의 더 많은 곳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세아베스틸
매일매일 이용하는 자동차, 지하철, 고속철도, 대형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통한 편리한 생활 속 가장 가까운 곳에는 세아베스틸의 기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완성을 책임지는 세아특수강
세아특수강의 특수강 소재 CHQ Wire와 CD Bar는 특별한 강도와 성질을 지닌 볼트와 너트, 작은 나사가 되어 자동차를 달리게 하고, 전자기계 제품들을 구동시킵니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종합용접회사 세아 ESAB
용접재료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세아 ESAB은 국내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준다는 자긍심으로 차별된 제품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소형 스틸튜브의 최고 브랜드 한국번디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사용되는 소형 스틸튜브의 대명사 한국번디는 수요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 명성을 쌓아 왔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세아제강
세아제강의 강관은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 사회와 생활을 이루는 다양한 모습의 뼈대가 되어 묵묵히 곁을 지켜온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그때 그랬지’

언제나 현재에 충실한 세아의 가족들이지만, 누구나 “내가 왕년에 말이야!”라고 큰소리칠만한 시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은 언제인가요? 내 생애 최고의 순간, 그 기억을 세아의 가족들과 나눠 봅시다.



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

한국번디 영업기획팀 이광석 팀장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04년 12월 말 정말 추웠던 저녁, 퇴근 후 현관문 앞에서 우리 부부는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설움과 감격의 눈물이었죠. 왜냐고요? 퇴근길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을 임신했다고요. 딸 셋을 낳은 후 가진 넷째가 아들이라는 소식에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던 그날 밤의 추억이 있습니다. 어느덧 첫째는 고2, 둘째는 중3, 셋째는 초등2, 넷째는 유치원생입니다. 며칠 전 넷째 아이의 취학통지서를 받고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내 마흔 일곱 번째 생일에, 네 아이의 생일 선물을 받았습시다. 각자 정성스레 쓴 편지였죠.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늘 지금입니다.

나? 패션쇼 모델이었다고요

세아에샵 경영지원실 손은숙 대리

얼마 전 아이들과 비디오 테이프를 정리하다가 대학 때의 ‘의류학과 발표회’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키 170cm의 여자모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전문 모델도 아니지만 부탁을 받았죠. 미스코리아 출신 의류학과 친구의 스파르타식 워킹 훈련 1개월 만에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대범하기로 소문난 나였지만 무대에 오른 순간 다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결혼하기 전에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고 조명 아래 무대를 가로지르던 내 젊은 날의 가장 눈부시던 순간입니다.

첫 월급으로 드린 용돈

세아베스틸 연주팀 박병희 대리

입사 후 받은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을 때입니다. 줄곧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다가 처음으로 용돈을 드렸을 때, 부모님 얼굴에 퍼지는 미소와 따뜻한 말 한 마디는 그동안의 죄송함을 조금이나마 사라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며, 인정받은 그날이야말로 내가 진정한 어른이 된,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눈물은 슬플 때만 흘리는 것이 아니더군요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이지훈 대리

‘이하음’.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내 딸의 이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7년 12월 12일 오후 1시 30분.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사랑스러운 공주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몇 시간의 산고 끝에 제왕절개로 태어나 아빠를 걱정시키던 하음이의 울음소리가 멀리 수술실에서 들려왔을 때, 그리고 방금 태어난 딸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Rock and Roll!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 소리

세아베스틸 영업1팀 정남호 대리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수백 명의 관중들이 환호하며 양코르를 외치던 순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지요. 대학교 2학년까지 밴드를 이끄는 리더이자 드러머로 활동했습니다. 여전히 목직한 기타소리와 드럼의 비트만 들리면 가슴이 쿵덕쿵덕, 손과 발은 까딱까딱 몸이 마구 움직입니다. 장발을 흘날리며 소녀팬을 거느리던 그 열정! 지금은 그 열정을 음악이 아닌 업무에 쏟아붓는 중이죠!

큰돈을 벌었던 필리핀의 큰손?!

세아제강 수출2팀 최연정

아직 인생을 다 살지도 못했는데 나의 ‘왕년’을 회상하자니 좀 쑥스럽습니다. 대학교 시절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쇼핑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월급의 일부는 계에 가입해서 갯돈을 탔죠. 처음으로 손에 쥐어본 큰돈이라 그런지 노는데 쓰기는 아깝더라고요. 다음 학교 등록금으로 내고 남은 돈으로 엄마의 진주 목걸이, 아빠에게는 가오리 지갑과 벨트, 오빠랑 언니한테는 향수를 선물했어요. 뭔가 가계에 보탬이 됐다는 기쁨,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선물을 했다는 기쁨에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눈부신 계급장을 양 어깨에 달던 날

세아제강 수출2팀 문정훈 부장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하던 날. 깔끔히 차려 입은 정복 양 어깨에 부모님께서 달아 주시던 소위 계급장. 빛나는 계급장 때문에 동기들은 서로 눈이 부셔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세상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지수가 최고조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후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벌써 19년 전 일이네요.



SeAH Inside 1

한국번디 인도 가전부품 공급업체 인수

한국번디는 인도의 가전부품 회사 Hansung Metal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전략의 일환인 인도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번디는 Hansung Metal 인수를 통해 거래선의 다변화 전략을 달성함으로써 종합부품기업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한국번디가 9월 30일 인도 현지의 가전부품 업체인 Hansung Metal을 최종 인수했다. 2003년 4월 설립된 Hansung Metal은 가전과 에어컨 부품을 가공하는 회사로 인도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와 캐리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Hansung Metal은 현재 수도 뉴델리(New Delhi)가 있는 북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의 노디아(NOIDA)와 남부에 자리한 타밀나두(Tamil Nadu)주의 첸나이(CHENNAI)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다. 첸나이 공장은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가공사업의 확장과 함께 자동차용 스틸튜브 소재의 제조 및 가공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공장 부지를 새로 매입, 2012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의 가전 및 자동차 부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인도 진출을 결정한 한국번디는 2011년 9월 Hansung Metal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계약을 마치고, 조직 재정비를 시작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와 공정 합리화 등에 본격 착수하며 Hansung Metal의 성장 기반 구축에 한창이다.

현재 인도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엘지전자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의 많은 가전 업체들과 현대자동차, 스즈키, 혼다 등 자동차 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이들 업체들은 주요 부품을 자국에서 제조하여 인도 현지에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원가 경쟁력이나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Hansung Metal은 이를 기회로 삼아 현지에서 생산한 부품 공급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현재 Hansung Metal은 삼성전자와 캐리어 등 가전회사에 의존한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계획이 마무리되면 VOLTAS, BLUE STAR, TATAMOTORS 등 인도의 가전 및 자동차 회사는 물론, 다이킨, 월풀, 파나소닉, 현대자동차, 스즈키, 혼다 등 현지에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가전 회사나 자동차 회사로 거래선을 다변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같은 사업구조 개편 및 거래선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한국번디는 현재 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가진 Hansung Metal을 2015년에는 매출규모 600억 원대에 이르는 종합부품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SeAH Inside 2

세아제강 세아에샵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세아제강과 세아에샵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에 선정됐다. 법사회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가족친화 경영은 사원과 기업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사원들의 애사심을 높여 기업 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

11월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23층 컨벤션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1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이 개최되어 세아제강과 세아에샵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106개 기업·기관에 대한 인증패가 수여됐고, 우수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가족친화제도의 저변 확대 촉구를 위한 자리로 꾸며졌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로, 남녀 근로자들이 직장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하고, 출산과 양육 및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스스로 경영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2008년 14개소, 2009년 20개소, 2010년 31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신규 95개 기업을 포함한 106개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세아제강은 쌍방향 소통채널 활성화, 사원부인 정기 교양강좌 실시, 고충처리 상담실 운영, 부부교육 및 부모교육,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시행, 사내 건강관리실 마련, 다양한 체육시설 운영, 어린이 철강캠프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 참여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해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세아에샵은 용접 전문가(KWE), 혁신 전문가 등 사내 핵심인재 육성, 업무 효율을 제고하는 Work Smart 활동 전개, 토론 중심의 ‘열린 회의’ 주관, 금연 등 건강한 회사 만들기 캠페인, 경영진의 등산경영, Mentor-Mentee 제도 운영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 신입사원 부모님 초청행사 개최 등 가정과 회사의 연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친화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는 심사기간 단축, 심사비용 인하 등 시상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설명회·홍보 등을 통해 예년보다 많은 기업·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제에 참여했다”고 전한 뒤, “앞으로도 가족친화 인증제를 활성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아, 글로벌 품질을

12월 1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및 관계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가 개최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품질경영 활동에 앞장서온 우수 기업과 공로자 포상을 통해 품질경영 활동을 법산업적으로 확산, 보급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 세아는 2명의 유공자 배출과 함께 총 7개 품질분임조가 경쟁을 뚫고 색색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향해 달린다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따라 붙고 있다”며 “국가 품질경영대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우수 품질분임조 최다 배출

국가품질상을 받은 기업·기관은 최고 경영자부터 현장 직원까지 꾸준한 혁신활동과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금융·재정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제품뿐 아니라 인재육성, 경영전략,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혁신활동이 눈에 띄었다. 세아 역시 올해 최대 수상자를 배출하며 품질경영에 힘쓴을 결실을 보여주었다. 세아베스틸 김병량 전무가 철탑산업훈장을 달았고, 한국번디 김경륜 평택공장장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우수 분임조로는 세아특수강의 활약이 눈부셨다.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시그마’, ‘시너지’와 충주공장 ‘트리플 제로 (Triple 0)’ 등 3개 분임조가 대통령표창 금상을 수상했다. 은상에는 세아베스틸 ‘월드바B’와 세아특수강 ‘Jump’ 2개 조가 선정됐고, 세아제강 ‘미르피’와 세아베스틸 ‘메탈리스트’ 2개 조가 동상을 수상했다. 이들 7개 분임조는 6월 지역예선 통과 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대표로 전국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8월 22~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예선을 통과한 260개 분임조가 다시 경합을 벌여 최종 메달 색깔을 결정지었다.

제37회 국가 품질경영대회 시상식 현장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좌우하는 품질경영

올해 국가품질상은 우리나라가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었다. 기업들의 품질 혁신과 기술 개발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서 품질 경쟁력이야말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필수요소임을 강조했다. “품질의 우위 확보는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생존의 문제로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제품의 수명주기가 빨라지면서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기는 시대’이므로 이기려면 끊임없이 경영과 품질을 혁신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20여 년간 생산현장 지키며 소형 스틸튜브 기술 발전에 공헌

한국번디 김경륜 평택공장장은 입사 후 20여 년을 한국번디 생산현장에 머무르며 공정 및 품질 개선활동을 수행해왔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소구경 전봉관 제조에 사용되는 고주파 전기저항 용접의 다이내믹 용접 입열제어장치, 소형 스틸튜브의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공급장치, 커플링 장치 등 다수의 특허기술 개발에 큰 공적을 세웠다. 또한 2009년에는 이중권 강관 제조 1호기 설비와 작업방법 개선으로 크립프 부적합품 감소라는 테마로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최우수상, 전국 품질경영대회 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설비조합 효율을 9.2% 향상시켰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번디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용 소형 스틸튜브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 유공자로 선정됐다.

“한국번디의 공장관리 개선 프로그램인 V-TPM 활동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품질분임조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과 아울러, 제안활동 범위를 늘리는 등 운영제도 개선을 계속 병행하여 이를 통한 사원 단결과 품질 불량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무총리표창
유공자부문
한국번디 김경륜
공장장



철탑산업훈장
유공자부문
세아베스틸
김병량 전무

특수강 개발과 품질 개선으로 기간산업 발전 기여

자동차, 기계, 조선 산업분야에서 필수적인 특수강 소재를 생산하는 국내 1위 기업 세아베스틸은 세계적인 수준에 버금가는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새로운 도약을 다지면서 특수강 생산본부를 총괄하는 김병량 전무는 이를 위해 제강과 연주공정의 기술 개발과 투자로 제품 내에 비금속 개재물을 극소화하는 고청정강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극연질강, 고온침탄용 소재 등의 강종 개발은 물론, 자동차용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 핵심 부품 소재의 선제적 개발과 신뢰성 센터 운영으로 안정된 품질의 소재를 공급하는데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기술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다. 무엇보다 신속한 설비 투자와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세아베스틸의 연간 생산능력을 2004년 80만t에서 2011년 230만t 체제를 실현하여 세아베스틸이 고품질의 특수강을 공급하는 국내 최고의 회사로 도약하는데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 수훈에 이르렀다.

“국가품질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의 결실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세아베스틸의 발전을 위해 애써준 모든 임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품질 혁신과 생산현장의 효율성 제고는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Global Leading 특수강 회사 세아베스틸로 도약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분임조 대통령표창 금상

금



현장중소부문 금상
세아특수강 시너지(포항)

0A-Shaft 품질조정 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량 증대

조원: 성영호(조장), 신동국, 안기환, 김민진, 허서, 김병권, 윤요섭, 김성원, 최태윤, 김수곤, 이경도, 이직상, 임상모, 오태준 (14명)

0A-Shaft 설비의 불가동 시간을 최소화하여 가동률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프리 스트레이트너 롤의 재질을 텅스텐 카바이드(WC)에서 Alloy-TiC으로 교체하고, 롤의 개수를 1개 더 늘리는 한편 3단 롤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폴리싱 머신 핸들 조정을 육안으로 하던 것을 치수화하고, 폴리싱 머신 노즐의 개수를 5개에서 7개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연간 1.5억 원 가량의 원가절감과 생산량 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새로운 도전들이 모여 더 큰 도약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현장 혁신활동에 매진한 것이 좋은 성과를 낸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객 클레임 감소

조원: 박성룡(조장), 김세경, 이동희, 정용법, 김강섭, 정태경, 김민영, 이민형, 고진환, 김진한, 김명엽, 서성국, 김문순 (13명)

2010년 품질 부적합품률이 매월 증가해 고객들의 클레임이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품질보증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요인별 효과, 시급성, 해결성을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제강회사와 협의해 검사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공정성 취급 흠에 대한 작업방법을 확립하고, 품질불만 회신 기일 단축과 정기적인 B/S 실시 등 신뢰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 고객의 클레임이 월 평균 106건에서 개선 후 월 평균 60건으로 43.3%가 감소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고객의 단단한 믿음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일이었던 만큼 모든 조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품질부문 금상
세아특수강 Triple Zero(충주)

금

포장공정 작업환경 개선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지수 감소

조원: 이근중(조장), 김용욱, 이창욱, 최병철, 이현승, 최현기, 곽경환, 최효지, 김병서, 이재희, 손춘선 (11명)

CHQ Wire 포장공정에서는 동일 작업의 단순 반복, 신체 반복동작 누적, 1t 이상 중량물 취급 등 공정의 특수성으로 작업자의 인체 관절인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많습니다. 현상 파악을 위해 비디오 분석으로 신체별 동작을 구분하고 동작별 유해요인 점수를 매긴 후 주요 개선부위를 선정, PDCA Cycle에 따라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Mini-Compacting기 개발, 구동이 쉬운 Dispenser 개발, 작업대 높이 최적화 등 설비의 개량과 개발로 작업환경을 개선한 결과, 포장공정의 업무 부하가 44.5%나 줄었습니다. 부가적으로 1회 포장시간을 2분 가량 단축하는 효과도 낳았습니다.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조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불편한 동작을 편하게, 불안한 환경을 안전하게, 불만이 있는 설비를 만족스럽게' 하자는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금

사무간접부문 금상
세아특수강 시그마(포항)

우수 분임조 대통령표창 은·동상

은



현장(기계금속) 부문 은상
세아베스틸 월드바B

교정공정 정지시간 감소로 고탄소강 생산목표 달성

조원: 강군택(조장), 김중홍, 왕윤탁, 이상훈, 서영인, 조진성, 왕명배, 문영훈, 최인영, 장상욱 (10명)

생산하는 강종 중 고탄소강 생산의 정지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정공정의 정지시간이 길어 생산목표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직교정 롤각 기준 재설정, 직교정 입하량 기준 변경, 구동을 재질 교체 및 높이 조정, 직교정기에 가깝게 유동 가이드 이동 등을 추진한 결과, 고탄소강의 정지시간을 기존 150분에서 86분으로 단축하여 생산목표를 100% 이상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아의 희망으로 점프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까지...

조원: 안용석(조장), 김경명, 송영길, 서현석, 김은곤, 김성진, 허민, 이상운, 윤종태, 김원일, 정연학, 박종운, 이외관, 오병곤, 박진태 (15명)

운영사례부문은 개선사례와는 달리 과거에서 현재까지 소그룹 활동의 운영사례 방법론을 테마로 다루었습니다. 세아특수강이 초기 경영적자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1위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큰 역할을 했던 분임조의 활동을 탄생기, 성장기, 시련기, 도약기, 성숙기로 진화과정을 선보였습니다. 참가 자격이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곳에만 주어진 만큼 실력자들 간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공장,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공장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사례부문 은상
세아특수강 Jump(포항)

은

동



설비부문 동상
세아제강 미르뎀(군산)

Champ21 TPM 활동으로 설비종합효율 향상

조원: 양충식(조장), 이민호, 조영래, 최현규, 정종화 (5명)

2010부터 Champ21 TPM 활동 진행을 시작하면서 현재는 5스텝 프로세스 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과제는 입축설비 개선으로 시간 가동률 향상과 SPM 설비 개선으로 델마크 부적합품률 감소라는 주제로 개선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회준비를 위해 애써준 모든 조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문안 만들기, 발표 준비를 근무와 병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해줬기에 작으나마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목표했던 결과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타 사의 선진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단조재 공정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

조원: 조덕수(조장), 정기연, 김훈중, 서봉석, 양정석, 이주영, 김구, 구남철, 정기연, 이경만, 박건우, 하남진, 함한섭, 소창수, 이민호 (15명)

타 공정에 비해 부적합품률이 가장 큰 단조재의 공정 개선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단조재의 유형별 부적합품률 현황을 분석하여 주요 요인이 되는 내부 크랙과 경도의 부적합품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로 내에 서빙을 하고 내부 크랙의 성장 방지를 위해 노말라이징 열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구상화 열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내부 크랙과 경도의 부적합품률 제로를 실현했고, 그 결과 단조재 부적합품률을 기존 6.69%에서 1.16%로 크게 낮추었습니다.



자유형식부문 동상
세아베스틸 메탈리스트

동

사랑의 열매와 함께한

2011 하반기 세아그룹 채용설명회

10월 3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7개 대학교에서 2011년 하반기 세아그룹 공채를 위한 채용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 최초로 기부 개념을 접목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대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나누어주는 기념품 디자인에도 세세한 관심을 쏟아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글 ●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파트 성가람 대리

채용설명회에 기부를 접목하다

2011년 하반기 채용설명회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회공동복지모금회와 연계하여 채용설명회 참석 인원당 3,000원을 기부하는 매칭 기부 개념을 도입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세아의 이미지를 알리고, 찾아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전국 주요 7개 대학 채용설명회 참석자는 총 1,975명, 매칭 기부금은 총 5,925,000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2월 14일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와 이태성 이사가 사회공동복지모금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했다. 채용설명회 매칭 기부를 통해 기부활동의 기회가 적었던 대학생들에게 기부 동참의 의미와 관심을 부여하고, 또한 세아가 지향하는 기업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

‘세아’ 아저씨,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다

많은 기업들이 젊은 인재 확보를 위해 나서는 채용설명회 시즌, 노출이 적은 세아를 알리고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데서 이번 설명회 준비가 시작됐다. 이를 위해 대학생에게 나눠주는 선물과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배려를 담았다. 틀에 박힌 기념품에서 벗어나 세아인을 형상화한 캐릭터 USB를 제작해 설명회를 찾은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조금이나마 세아를 기억해줄기를 기대했다. 안전모를 쓴 비즈니스맨 모양의 캐릭터 USB는 현장을 지키는 세아인이자 국내외를 누비는 세아인의 특징을 묘사한 것이다. 이 기념품을 받은 대학생들의 반응은



개인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후기가 올라올 정도로 뜨거웠고, ‘세아’ 아저씨라는 별칭으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하는데 성공했다.

‘세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다

본격적인 채용 설명에 들어가서는 2011년 상반기 신입사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UCC를 먼저 선보이며 집중도를 높였다. ‘신입사원의 각오’, ‘취업 준비생의 어려움’ 등을 주제로 한 UCC는 높은 수준의 영상물은 아니었지만 취업 준비생들이 흔히 겪을 만한 일들을 재미있게 엮어 집중도를 높였다. 회사소개 영상과 자료를 소개하면서는 대표적인 제품들이 생산되는 과정을 재미있는 일러스트 그림으로 접목하기도 하고, 50년 이상을 이어온 세아의 역사나 세아에서 일하는 세아인들의 모습을 소개하며 세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최대한 넓히고자 했다. 추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설명회를 만들어 세아에 대해 많이 알아 가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채용설명회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채용 상담 프로그램으로 개선함으로써 대학생들과의 접점을 늘려 세아의 인지도를 개선해 보다 많은 우수 인재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세아’에 어울리는 인재를 찾고자 절차를 정비하다

한편, 11월 24일부터 하반기 그룹 공채 면접이 진행됐다. 하반기 채용부터는 세아와 적합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절차를 다소 바꾸었다. 우선 기존에 시행하던 오프라인 인적성 검사를 폐지했다. 지원자들의 직무 적합도와 세아에 적합한 인성을 가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한 단계였지만, 한 시험으로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인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면접을 강화시켰다. 기존 각 계열사별로 달리 보던 방식을 통일하여 1, 2차 면접으로 세분화했다. 1차 면접은 각

개인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게 된다. 2차 면접은 기술면접(PT 및 토론면접)과 인성면접으로 나뉜다. 기술면접은 지원자의 문제해결능력, 논리력, 사고력,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인성면접은 기업문화, 인재상 등과 부합하여 세아에서 회사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011년 하반기 세아그룹 대졸 신입사원 채용은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한국벤디, 세아예삽, 세아메탈 등 총 6개 사, 모집인원 50여 명 규모로 진행이 됐다. 서류접수 결과 5,000여 명이 지원하여 100: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세아제강 국내영업 763:1, 인사 459:1, 세아베스틸 구매 273:1 등 일부 직무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이렇게 선발된 지원자는 최종 신체검사 절차를 거친 후 2012년 1월 2일 첫 출근하게 된다. 일주일간의 회사 분위기 적응 후,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9박10일간 경기 양평에 소재한 kobaco 연수원에서 신입사원 입문과정 교육에 들어간다.



왼쪽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학봉 본부장,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 이태성 이사▶



4기 챌린지 리더 워크숍

중국 경제 발전의 현주소를 살펴보다

4기 챌린지 리더들의 6차 워크숍이 11월 13~17일 중국에서 진행됐다. 27명의 챌린지 리더들은 상해와 인근의 난통, 쑤저우를 오가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세아의 현지법인들은 물론, 국내 철강사들의 현지법인, 철강 수요 산업의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을 방문하여 중국 산업 발전의 현주소를 경험했다.



세계 브랜드들의 각축장, 중국 상해를 찾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4만개 정도로 추산한다. 세계 선진 기업들이 대거 모여들며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4분기 9.6% 성장으로 추가 긴축이 예상되지만, 세계 2대 생산 대국이자 미국에 이은 세계 2대 무역 대국임은 틀림없다. 중국을 세계적인 브랜드의 최대 각축장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이끌며 높은 성장과 변화를 견인한 동력은 무한한 내수시장 잠재력, 풍부한 기술인적자원과 높은 기초과학 수준, 선진 기업의 투자로 경영 노하우와 첨단 기술의 이전 효과, 개혁 마인드를 가진 경제관료들과 일관된 정책 추진, 올림픽, 엑스포 등 끊임없는 이벤트 경제가 밑받침했다. 철강시장에서 역시 세계 철강의 50%가 소비되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철강국으로서,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세아의 4기 챌린지 리더들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 중국, 그 가운데서도 19년간 매년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룩해온 상해를 찾았다.

새로운 기회와 만나며 경쟁력을 창출하다

세아에서 처음으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곳은 2003년 Suzhou SeAH Precision Metal을 통해서였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상해 인근 난통에 세아특수강과 세아메탈이 현지 제조공장을 건설했다. 해외 워크숍 첫 날 난통에 위치한 POS-SeAH Steel Wire와 SeAH Automotive 견학에 이어 방문한 Suzhou의 공장은 2003년 세아가 중국에 직접 세웠던 첫 공장이라는 데 의미가 깊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할 무렵 들어선 공장은 조용했지만, 실상은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했다. 상해에 진출해 있는 가전회사들에게 부품 소재나 가공품들을 공급하는 Suzhou SeAH Precision Metal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자 자동차 분야로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개발에 한창이었다. 챌린지 리더들을 반겨준 이광성 법인장은 “세계적인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찾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결과 Suzhou SeAH Precision Metal을 비롯한 해외 매출이 국내를 넘어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하겠지요”라며 기회를 찾고 또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금 중국은 근로자와 환경 보호정책이 최대 이슈

상해에 진출한 한국 철강기업들의 현지법인으로 고려제강과 아르셀로미탈의 합작법인 Yangtze Kiswire ArcelorMittal과 포스코가 경영하는 Zangjiagang POSCO Stainless Steel(ZPSS) 견학을 통해서도 현지화와 환경 보호에 주력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특히 장쑤성 장자강변에 위치한 ZPSS는 2010년 외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스테인리스 일관 생산 100만t 체제를 완성했다. 저가 원료 사용기술과 품질 차별화로 중국 내 스테인리스 기업 중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안정된 경영활동으로 중국 스테인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중 합작기업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배경에는 현지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경영방침이 기반이 됐다. 창립 초기부터 지역사회 장학 기금 마련, 교육기자재 기증, 불우이웃돕기 참여, 소방기자재 기증, 단체 헌혈참여 등을 전개해왔다. 일반 사업자에게 전용 항구 개방, 인근 학교에 지속적인 후원 등을 통해 현지 지역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포스코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환경보호 활동과 전체 투자비의 15% 환경보호 시설 투자로 부지면적의 45% 이상을 녹지화함으로써

2009년 장자강시 정부로부터 환경모범업체에 선정됐다. 아울러 차장, 부장급 직원들은 중국 명문인 칭화대, 베이징 대 등에서 단기 MBA 과정을 통해 고급관리자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우선에서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고, 외국기업 우대정책 철폐, 환경정책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에서 ZPSS의 경영방침은 오래 전부터 그 궤를 같이 한다. 이 밖에 중국 최초로 엘리베이터 생산 자격을 가졌던 회사 EDUNDBURGH, 세계 2위의 중국 PC업체 LENOVO, 상하이자동차의 ROEWE 제조공장 등 중국의 철강업체를 방문했다.



최근 세계 트렌드의 중심에는 ‘스마트’(Smart)가 자리하고 있다. 똑똑한, 영리한의 뜻에 정보처리능력의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스마트폰, 스마트 빌딩, 스마트워크 등 지능화된 신기술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고 해서 모두 스마트해진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본격적인 스마트폰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더욱 스마트한 세아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모바일 EGS가 탄생했다. 편리한 기능을 갖춘 모바일 EGS를 소개한다.

글 ● 세아네트웍스 전략기획실 이한성

모바일 EGS로 만나는 스마트한 세아



휴대폰에서도 손쉬운 EGS 이메일 사용

요즘 사람들에게 이메일은 전화처럼 사용하는 필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이메일과 전화는 각각 다른 단말기를 사용했으나, 2년 전 아이폰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무선 인터넷 등 IT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구현되는 스마트워크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다. 실시간 이메일을 체크하고 업무 정보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Outlook, Gmail과 같은 메일 계정을 통해 휴대폰으로 EGS 이메일을 확인했으나, 전달 방식으로 가져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불편함 관리 등 EGS 메일과는 연동되지 않았다. 세아네트웍스에서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모바일 EGS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다. 메일 기능을 강화해 EGS에서와 같이 수신자 이름을 검색 지정하거나 조직도에서 대상 설정이 가능하다. 외부로 이메일을 보낼 때 역시 EGS 주소록에 메일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면 이름만 입력을 해도 수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알림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새로운 메일 도착을 바로 알려주기도 해서 휴대폰 메시지 기능과 똑같이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도 결재 가능한 환경

모바일 EGS의 주요 기능 중 다른 하나는 결재 시스템이다. 결재의 Lead-time을 단축하고 종이 문서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관리도 용이해 효율적이다. 나아가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을 실현해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그 동안 담당 임원의 출장이나 휴가로 업무 공식 발생 시 업무 지연은 물론, 담당 임원 입장에서 업무가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던 것을 모바일 EGS로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EGS에서는 결재요청 문서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결재문서 조회, 결재 진행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결재문서에 포함된 첨부파일은 문서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미지 파일로 전환되어 첨부 보기도 가능하다. 모바일 결재를 적극 활용한다면 앞으로 결재 라인의 공식으로 다리를 동동 구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아가족이 스마트폰 안으로

개인 휴대폰에는 가족, 친구, 고객, 회사 등 대상을 분류하여 지인의 연락처를 저장한다. 회사 항목만 가지고 보았을 때 업무상 자주 연락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연락처를 저장할 하게 된다. 그런데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부서의 누군가와 연락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는 사무실에 있는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모바일 EGS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세아그룹의 임직원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클릭 한 번으로 문자 또는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 외부 고객이나 개인 연락처도 EGS 주소록에 저장하여 관리해보자. 모든 연락처가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분실해도 일일이 다시 저장하는 난감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

나만의 개인 비서 역할

업무시간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은 업무 계획을 짜는 것이다. 내부 회의, 고객 미팅, 외부 세미나, 문서제출 기한 등 수시로 쌓여가므로 업무의 일정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일정관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업무노트나 달력에 적는다거나 휴대폰을 활용하는 등 개인별 선호 방식이 다르다.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 개인과 회사의 일정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건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모바일 EGS의 일정관리 기능이다. 모바일 EGS는 개인, 부서, 회사, 공유 등의 카테고리 별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오늘, 일, 주, 월별, 전체 등 단위 별로 조회도 가능하고 EGS와도 연동되어 매우 편리하다. 모바일 EGS의 일정관리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스마트워크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전자우편

- ① EGS에서 사용하는 전자우편을 모바일 EGS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신인은 이름 검색, 조직도 선택으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암호 편지 및 중요 편지 선택이 가능하다.
- ④ 회신 및 전체 회신이 가능하며 수신이나 원본 정보는 선택 삭제할 수 있다.
- ⑤ 타인에게 전달 시 첨부파일도 함께 전송된다.

전자결재

- ① EGS에 등록된 결재요청 문서를 모바일 EGS에서 확인, 결재 처리할 수 있다.
- ② 결재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 ③ 결재문서를 조회할 수 있다.
- ④ 전자결재 문서의 첨부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

주소록

- ① 세아 조직도 조회가 가능하다.
- ② EGS에서 사용하는 개인 주소록을 모바일 EGS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 ③ 해당 사용자에게 이메일, 전화, SMS 문자 발송이 바로 가능하다.

게시판

- ① 게시판 글쓰기, 검색, 열람이 가능하다.
- ② 댓글 및 첨부파일 조회가 가능하다.
- ③ 본문의 글자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일정관리

- ① 개인일정/부서일정/회사일정/공유일정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 ② 오늘/일별/주별/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 ③ 실시간 일정 작성이 가능하며 EGS의 일정관리와 연동된다.

알림 설정

- ① 새로운 메일 도착이나 새로운 결재문서 요청이 있을 경우 도착 메시지를 알린다.
- ② 알림 메시지의 수신 여부, 수신 일자, 수신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무결점 품질을 위해 신중과 완벽을 기한다

세아에샵의 품질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데는 이유가 있다. 세심한 공정과 과정의 가운데 세아에샵 품질경영실이 품질에 관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검토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책임지는 조선에서부터 에너지를 담는 원자력 부품까지, 아주 작은 오차나 불량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들, 바로 세아에샵 품질경영실 사람들이다.

완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세아에샵 품질경영실은 세아에샵의 이름 아래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의 핵심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성격상 품질관리, 품질보증(QA), 기술지원(AS/BS)이라는 세 가지 역할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품질관리분야에서는 품질 안정과 향상을 위한 모든 제조공정을 살피는 모니터링 활동, 원재료와 공정은 물론 제품 품질 불량이 발생했을 때의 관리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거나 인수검사-공정패트를-제품검사, 제품성적서를 발행하는 등 품질의 완성도에 관한 모든 과정과 조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품질보증분야에서는 품질시스템의 도입과 유지, 개선, 선급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일, 원자력 제품 검사와 CMTR 발행, 품질보증활동의 감시와 측정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분야에서는 품질TF팀과 함께 고객 품질불만 해결을 위해 고객을 방문해 상담하고 조사하는 BS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모든 과정과 순간을 지켜보고 최후의 공정까지 눈을 떼지 않는 장인정신으로 매 순간 작업에 임한다. 품질경영실에서는 이러한 모든 품질 활동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여 당사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월별, 연별로 경영진에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임직원의 참여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들의 열정

한순간도 소홀할 수 없는 품질경영실의 업무는 각자 맡은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서로 자율적으로 교류하고 업무 내용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꾸준한 노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창사 이래 제품 불량률을 1000pm까지 줄이자는 목표가 불가능이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목표를 뛰어넘어 현재는 불량률 수치 300pm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결과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품질의 불량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들 팀의 중요성과 노고를 취하하는 의미로 품질경영팀은 얼마 전 품질경영실로 승격되었다. 품질경영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량률을 차차 줄여나갈 예정

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과 실행으로 미래를 펼쳐갈 계획이다. 품질경영실의 또 다른 큰 화두는 ASME QSC(미국 기계학회의 원자력 제조 인증)과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품질시스템 인증취득이다. 차세대 경쟁력 있는 에너지로 원자력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내년부터 원자로 7개를 건설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각종 제품들은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에 그 인증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세아에샵의 제품은 그만큼 안전하고 우수하며 현재 국내 용접재료 업체 중 원자력 분야에의 참여 경험이 가장 오랜 기업이기도 하다. 그러한 사실과 품질의 우수성을 높여 현재 집중하고 있는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야로 진출함으로써 품질 시스템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세아에샵은 물론 세아 전체에 큰 도약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품질경영실
하회석 실장



INTERVIEW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을 것”

다른 분야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품질경영실의 업무야 말로 기본에 가장 충실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다음 단계로 도약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저는 늘 직원들에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아에샵의 ‘한길 한가족’이라는 문화는 저와 직원들의 마음에 늘 따뜻함과 용기를 줍니다. 해를 더할수록 고객의 요구는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정해진 구성원 안에서 그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능력, 다른 시각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직원들은 전문성과 열정을 기반으로 하여 늘 함께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다른 해와 비교하여 업무가 과중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불평불만 하나 없이 업무에 임하는 모습에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

세아에셋 품질경영실의 신나는 겨울나기

김주홍 분임장

품질검사원으로 구성된 신호등
분임조의 장. 말은바 업무는 끝까지
완수해내는 강한 책임감과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품질경영실의
든든한 대들보다.

박경현 사원

품질보증 업무 담당. 톡톡 튀는
신세대지만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품질경영실의 센스쟁이.
고강도-다분야로 성장해가고 있는
멀티플레이어 신입사원

강봉규 사원

Un-baked FCW, 피복봉,
솔리드 용접재료 품질관리 담당.
항상 웃고 조용하지만 어느새 말은
일은 완벽하게 끝내버리는
다정하고 푸근한 남자

옥수정 사원

제품성적서 발행 및 검사 데이터
관리 담당. 성적서는 완벽하게,
고객 대응은 친절하게, 순수함과
착한 미소로 인기몰이 중인
세아에셋의 꽃미녀

Winter

김영숙 과장

품질보증 업무 총괄.
예상을 뛰어넘는 대범함과
따뜻함에 책임감까지 겸비했다.
품질보증팀 브레인이자 통 크기로
소문난 세아에셋의 원더우먼!

조정제 과장

품질관리 총괄 및 기술지원 담당.
돌파가라면 서러울 꼼꼼함과
박학다식을 자랑한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품질 원칙을
지켜나가는 품질분야의 교수

신나게! 즐겁게!

하희석 실장

품질경영실의 총지휘자.
업무에 관해서는 최고의 꼼꼼함과
섬세함을 가지고 지휘하지만
팀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우주 최고인 미소천사

문무(文武)를 겸비한 지략가

세아의 용맹한 장수를 만난다

세아베스틸 재무팀 차장

권정태

“적이 커도 반드시 나아가고, 적이 강해도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며, 적이 사납든지 용맹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나아간다.” 신채호는 그의 저서 <을지문덕>에서 고구려의 지략가이자 맹장인 을지문덕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문과 무를 겸비한 장수의 미덕은 바로 뛰어난 결단력과 지혜에 있다. 세아베스틸의 맹장(猛將), 권정태 차장의 지혜와 용맹함은 이미 세아베스틸에도 소문이 났다.

세아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

얼마나 뛰어난 제품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만큼 그 제품의 완성도와 공정과정의 철저함을 대외에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권정태 차장이 몸을 담고 있는 세아베스틸의 재무팀 역시 세아베스틸 제품의 뛰어난 완성도와 세아라는 기업의 신뢰도를 더욱 올리기 위해 늘 거듭 고민하고 매진한다. 그가 담당한 업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세아베스틸의 주식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주식 관련 공시 및 IR(Investor Relations,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해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활동)이다.

그의 고민과 노력은 한국 IR대상 Best IRO(Investor Relations Officer)상이라는 쾌거를 가져왔다. 이 상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IR활동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 상장기업 담당자에게 주는 상이다.

“2011년 9월 현재 당기순이익이 1,823억 원의 실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실적이 크게 향상되어 자본시장에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좋은 영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능력과 성과에 대한 수상을 두고 그는 타고난 천재는 없다고 말한다. 다부진 눈의 소유자이자 최고의 상을 수상한 권정태 차장에게도 스스로 나약해졌다고 느낄 때가 있을까? “많습니다. 아주 오래 전인데요, 제가 힘들 때 입사 동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간도 결국 지나간다”고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한 템포 쉬어가자는 생각으로 아주 잠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속으로 ‘다 지나가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제대로 하자’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진정한 리더의 조건

흔히 우리는 역사를 가리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고 한다. 역사 관련 서적이라면 눈빛이 반짝거리는 권정태 차장은 역사 속의 리더 중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를 꼽았다. “저는 사실 거칠고 야성적인 장군형은 아닙니다.” 권정태 차장은 용장보다 덕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배수진을 쳐서 부하들을 적진으로 내몰기보다는 모두가 마음으로 따르는 리더십을 꿈꾸기 때문이다. 그가 꿈는 리더십의 조건은 두 가지. 첫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그리고 그 안목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는 대화를 통한 소통이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진 리더가 되고 싶고, 또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고 한다.

“노력하지 않아도 뛰어난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나 천재라고 불리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꾸준함이 있다면 천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나아진다면 언젠가는 그 분야에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용기를 준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경험에서 연유한 말이기엔 신뢰를 더한다.



힘이 되는 다섯 가지



희망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하고, 해가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믿게 해주는 희망



가족
내 힘의 원천은 사랑하는 가족.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들과 가정의 영원한 중심 아내



책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고, 가지 않은 길을 알려주며, 생각을 할 수 있게하는 다양한 책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
나와 아내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과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는 형제들



죽마고우(竹馬故友)
어릴 적부터 같이 동고동락하며 즐거움과 추억을 주는 친구들

Profile

이름 | 권정태
별명 | 생글이
[대학 시절 늘 밝은 미소를 잘 짓는다고 해서 선배가 붙여준 별명. 요즘은 뚜렷한 별명이 없네요.]
좋아하는 것 | 축구, 역사 관련 서적 읽기, 여유로운 휴일과 시간
싫어하는 것 | 게으름과 나태(가끔 스스로 게을러 졌다고 느낄 때)
좌우명 | 세사재심
[世事在心,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고, 세상의 모든 일 역시 자기 마음 안에 있다.]

시간이 쌓이듯
인생

모든 계절의 끝자락 겨울입니다.
내리고 쌓이지 않는 눈처럼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시간 속에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세아가족들의 한 해는
뜨겁게 타올랐고
차갑게 이성적이었으며
포근하게 주변을 돌볼 줄 아는
꽤 찬 365일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가는 시간에도
추억은 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시간,
땀 흘리며 일궈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세아의 미래를 만듭니다.



세아메탈 훈훈한 3인방

아듀! 2011년 송년 파티 현장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반짝반짝 불빛들이 가득 차는데, 쏟아지는 인파가 싫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면, 여기 세아메탈 세 사주의 똑똑한 연말 파티 비법을 소개한다. 오로지 우리만을 위한 레스토랑 전세내기, 원테이블 레스토랑에서 그들의 오붓했던 시간을 담았다.



알싸하게 매서운 겨울바람에 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일까. 그 어떤 때보다도 시간의 속도가 빠른 12월은 후회와 흥분이 섞인 채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간다. 그러나 여기 후회보다는 즐거움과 기대로 가득 찬 세아메탈의 3인조 김지영, 이희성, 조민호 사주가 일상에서 벗어나 소소한 파티를 열기로 했다. 떠나가는 2011년을 아쉬워하고, 새해를 맞기 위한 즐거운 파티. 세 사람은 깜깜한 어둠과 은은한 조명을 밝으며 조심스레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다르기에 더 가까워진 셋

파티라는 말에 의상에 신경을 쓴 티가 나는 세 사람,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조금은 긴장한 것도 같다. 평소 캐주얼이나 편한 옷을 즐겨 입는다는 그들이지만 오늘은 파티라는 말에 특별히 멋을 냈다. 일행을 반긴 것은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조그맣게 흐르는 재즈 선율. “파티는 처음인데 조금 떨리네요.” 친구나 가족도 아닌 회사 동료와의 파티가 낯설기도 하련만 이희성 사주는 재미있을 것 같다며 빙그레 웃었다.

자그마한 체구, 또렷한 눈동자의 김지영 사주는 10년차의 베테랑 선배다. 앳된 얼굴이지만 단어와 문장을 천천히 생각해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이 그녀의 경험과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아직 수출팀에서 영업팀으로 자리를 옮긴 지 2달 밖에 되지 않은 이희성 사주와 이제 막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조민호 사주의 선배이자 스승이기도 하다. 업무는 물론이고 연애 상담까지 해준다고 다른 두 사주가 칭찬일색이다. 그런가 하면 척 보기에든 풍채가 좋은 이희성 사주는 말수가 적고 진중하다. 무엇보다 세 사람을 가까워지게 한 것은 1년차 신입사원 조민호 사주다.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과 익살스러

운 말솜씨에 세 사람이 모이면 분위기를 주도한다. 나이도 엇비슷하지만 마치 3종 선물세트처럼 제각각 다른 성격과 외모가 완성된 퍼즐처럼 딱딱 맞는다.

송년 파티라 특별히 준비한 나비넥타이와 루돌프 머리띠가 아무래도 어색하고 재미있는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웃기 바쁘다. “아, 이런 걸 어떻게 써요?”라며 난처해하던 이희성 사주를 마지막으로 모두 루돌프 머리띠를 나란히 쓰고 앉아 있으니까 루돌프 삼형제가 웅기종기 앉아 있는 것 같다.

Seah Star



1. 마음을 담은 크리스마스 선물
2.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며 이야기를 나누는 세 사람





주고받는 선물 속에 쌓이는 동료애

에피타이저로 간단한 샐러드와 핑거푸드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레스토랑 한쪽 벽면에 비치는 영화 <비포선라이즈>의 영상이 아름다움을 더했다. “제가 저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마 이후의 이야기는 <비포선셋>일 거예요. 음악도 풍경도 아름답잖아요.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한다는데...” 이희성 사우는 무뚝뚝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음악과 영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눈빛이 반짝인다.

연말 모임답게 선물을 준비했다. 책 선물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진중하고 따뜻하다. 세 사람은 각자 선물하고 싶은 책을 선정해왔다. 김지영 사우는 <육일약국 갑시다>를 이희성 사우에게, 이희성 사우는 <이기



는 습관>을 조민호 사우에게, 조민호 사우는 <30대, 평생 일자리에 목숨 걸어라>를 김지영 사우에게 각각 선물했다.

선정 이유를 물으니 서로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라고 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펼쳐 각자 책과 함께 전해줄 마음을 글로 담는다. 카드에 쓰는 글을 누가 볼 새라 서로 손으로 가리고 쓰는 품들이 자못 진지하다. “<육일약국 갑시다>는 마산에서 조그마한 약국을 하던 저자가 결국 CEO가 되기까지의 경영 노하우와 고객서비스 비결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에요. 영업사원이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골랐어요.” 역시 10년차 선배라서 그런지 조리 있게 책 선정 이유를 설명한다. 이런 모습에 꼼꼼하고 똑똑하다고 했구나 싶어 이해가 간다.

정성스레 포장한 책 선물을 풀어보는 일행의

얼굴이 어린 아이처럼 발그레 달아오른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해 보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이기는 습관>을 받아든 조민호 사우는 평소 읽고 싶던 책을 받았라며 기뻐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에는 어딜 가든 붐비기 마련인데 이런 곳에서 한적하고 조용히 이야기도 나누니까 좋네요. 앞으로 여자친구한테 이벤트할 일 있으면 이런 곳에서 해야겠어요.” 즐거웠던 파티와 촬영이 끝나고 세 사람은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연말, 그리고 새해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간관계의 비법은 경청이라는 말이 있다. 바리스타 과정을 밟아보겠다는 김지영 사우,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희성 사우, 여자친구 만들기과 영어공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자신만만한 조민호 사우. 이렇듯 색색의 색종이와 같이 다른 색을 갖고 있는 그들이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서로의 모습에서 배려와 존중이 가진 힘을 엿본다.



1. 크리스마스 카드
- 2,3. 보기만 해도 감쪽하고 먹음직스러운 에피타이저와 메인요리
4.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가는 김지영 사우
5. 세아메탈 루돌프 삼형제의 영원한 발전과 우애를 위해 건배!



탕탕탕 사격체험 나들이 내일을 향해 쏘라!

세 아 로 지 스 국 제 물 류 팀



두근두근 사격체험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화성의 경기도종합사격장. 다소 높은 지대 덕분에 한 눈에 들어오는 화성시의 전경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도착하자마자 일행의 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총성이었다. 특히 사격에 관심이나 취미가 있지 않으면 평생 동안 들어볼 일 없는 총소리는, 척 보기에라도 여성스러운 이도연, 천영정 사우의 두 눈을 동그랗게 만들었다. “총소리가 되게 크네요.” 사격체험 전부터 떨리는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뜬다. 사격 전 25개의 엽탄을 넣을 조끼와 귀를 보호해줄 귀마개를 착용하며 조금은 들뜬 모습으로 순서를 정했다.

클레이 사격의 유래는 영국의 로코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귀족들이 비둘기를 바구니에 넣어두고 조수가 멀리서 끈으로 뚜껑을 열어 비둘기가 날아가면 이를 사격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사격이 대중화되면서 비둘기를 사용하는 것이 잔인하다는 논란 때문에 진흙(클레이, Caly) 접시로 바뀌었지만, 비둘기에서 유래한 피죤(Pigeon)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더 이상 귀족들의 스포츠는 아니지만 클레이 사격은 총성이 크고 넓은 부지가 필요해, 비교적 교외로 나와야 즐길 수 있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다. 그러나 한 번 그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고.

클레이 사격의 묘미

사격체험이 시작됐다. 씩씩하게 제일 먼저 체험에 나선 것은 의외로 이도연 사우와 이상경 차장. 이상경 차장이 씩씩하게 사격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한 마디 한다. “우리는 서로 경계하고 있어요. 방탄조끼 입고 왔다가요.” 총부리를 서로 겨눌까봐 방탄복을 입고 왔다는 이상경 차장의 농담 한 마디에 사격장이 웃음바다가 됐다.

왼손으로 총신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방아쇠를 당긴다. 살짝 앞으로 체중을 실어 발사될 때의 반동에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자세를 잡는다. 총의 무게는 3.6~4kg으로 체구가 작은 여 사우들에게는 조금 무거운 것 같다. 클레이 사격은 1라운드에 25발이 주어지는데 한 번에 엽탄을 두 개씩 장전한다. 실내에서 하는 권총 사격보다 탁 트인 야외에서 하는 클레이 사격의 진짜 묘미는 선명한 주황색 클레이 접시가 총에 맞아 산산조각 날 때다. 집중력과 빠른 판단력, 순발력이 요구되는 사격은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사격장 코치의 지도에 따라 라운드에 섰다. 사격 준비를 마친 후 “아”라고

세아의 해상, 항공 운송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세아로지스 국제물류팀. 여섯 명이라는 소수정예로
전 세계를 누비는 세아의 제품들이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다. 물류 업무라는 특성 상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일 처리가
필수적인 그들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줄 시원한
사격체험,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경기도종합사격장의
하늘이 총성으로 광광 울렸다.



나지막이 신호를 보내면 클레이 접시가 날아오른다. 다음 차례는 김승경 팀장과 김진원 대리다. 김진원 대리는 모자까지 눌러쓴 폼이 당장 사냥이라도 할 기세다. 장전을 하고 조준을 하는 동작까지 군더더기가 없다. “군대에 있을 때 사격으로 포상휴가도 받았어요.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죠.” 여유만만 두 남자는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시종일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박진민 대리와의 막내 천영경 사우는 점심 내기를 했다. 천영경 사우가 사격을 하는 동안 박진민 대리는 눈을 떼지 않는다. “아, 저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영경 씨 몇 개 맞추는지 봐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웬 일? 총을 쥐어보는 게 생전 처음이라는 천영경 사우가 연속해서 세 발이나 클레이를 맞췄다. 박 대리는 괜히 헨디캡까지 줬다며 후회를 했다.

“원래 영화에서 보면 총알 빼고 장전할 때 두 손 다 안 쓴다니까요. 한 손으로 척척 하잖아요. 쉬울 것 같아요. 여기는 표적도 옆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엄청나게 쉽겠네.” 자신만만한 박진민 대리, 막상 사격을 시작하자 팀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머리를 굴적이는 박 대리의 모습에 뒤에서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신이 났다. “취사병 출신 아니야?”, “박 대리, PX에서 빵 팔았지?” 분위기 메이커 박 대리는 말을 할 때도, 말없이 사격을 할 때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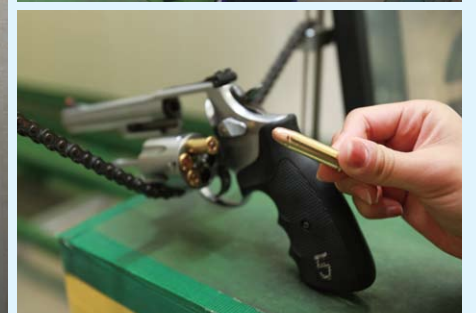
경기도종합사격장

유래, 상패, 통패! 시원한 사격으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대형 사격장. 클레이사격, 공기총사격, 화약총사격, 권총사격 등 다양한 시설로 각종 대회는 물론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810-2

문의 031-352-6056

왼쪽부터 천영경, 이도연,
박진민 대리, 김진원 대리, 김승경 팀장, 이상경 차장



영화 속 주인공처럼

어렵게 시간을 내서 경기도 화성까지 왔는데 권총 사격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클레이 사격장 옆에 위치한 실내 권총 사격장에는 다양한 권총이 있는데, 초보자들을 배려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센 남자 사우들은 45구경 글락(9mm)을, 여자 사우들은 38구경 리볼버를 권했다.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사용한 총으로도 유명한 45구경 글락. 라운딩에 선 김승경 팀장의 눈매가 날카롭다. 권총 사격은 실탄을 사용하여 사격을 하는 만큼 집중이 필요하고 위험하기에 전문 코치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권총을 손에 쥐었다. 권총은 한 번에 10발을 장전하는데 왼쪽 눈을 감고 높이를 정확히 맞춘 후 표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면 된다. 발사하는 순간 잠시 숨을 멈추어야 적중률이 올라간다. 뜻밖에도 여자 사우들이 선전했다. 코치님들이 “군대에 가도 되겠다”며 감탄을 연발할 정도로 계속해서 표적의 10점 부근만을 맞추는 기염을 토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귀마개를 하고 한 쪽 눈으로 표적을 노려보는 모습들이 하나같이 진지하고 매섭다. “클레이 접시가 부서질 때 시원하게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교외로 나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사격체험도 하나씩 속이 시원합니다.” 소수 정예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늘 열심히 해 주어 고마운 팀원들에게 조금 특별한 나들이를 선물할 수 있어 즐거웠다는 김승경 팀장과 세아의 날개이자 다리인 세아로지스 국제물류팀, 앞으로 세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더 큰 활약을 하고 싶다는 그들의 의지는 총성보다도 더욱 날카롭게 빛날 것이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김치를 담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우리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강남도시가스의 일원이라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날, 그날의 기억 속으로 세아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글 ●●강남도시가스 공급지원팀 문병준

강남도시가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다시금 느끼는 봉사의 참의미



강남도시가스 공급지원팀
문병준

추운 겨울,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11월 11일과 12일, 2011년 4/4분기 행복나눔 봉사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행복나눔 봉사활동은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자발적인 정성의 손길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지속적인 행복나눔을 실천해 온 회사의 오랜 전통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입사한 저에게는 처음으로 참가하는 행복나눔 봉사활동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권역내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활동이기에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홀로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독거노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주변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30세대를 위해 두 팀으로 나누

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장 김치를 담그는 사랑나눔팀 20여 명과 각 가정에 김장김치를 나누어 주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쁨나눔팀 20여 명, 이렇게 활동을 둘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그 중 저는 사랑나눔팀에 속하게 됐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일찍 모여 배추를 다듬고 미리 소금에 절여 둡니다. 다음 날에는 김치에 넣을 각종 재료와 양념으로 김치속을 만들고, 버무리고, 절인 배추에 김치속을 넣고 깔끔하게 포장합니다. 그렇게 김치담기가 끝나고 각 가정에 배송될 수 있도록 나르며 값진 땀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김치라는 것을 먹을 줄만 알았지만



드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저였는데, 이렇게 난생 처음 김치를 만들어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저에겐 조금은 낯선 이 일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재미있고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처음 ‘봉사활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기도 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 일에 참여하여 봉사가 아니라 민폐만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을 따라 하나하나 배워가며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반드시 내가 잘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비록 과정은 힘이 들었지만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떤 일이든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경험을 저의 회사 생활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평소 근무할 때와는 다르게 위생모자에 앞치마, 고무장갑을 낀 저와 동료들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은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사랑과 온정을 나누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사장님부터 저와 같은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웃사랑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애쓰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뿌듯하게 했습니다. 불현 듯 남을 돕기 위해 참여한 봉사활동이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얻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강남도시가스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는 “봉사를 주로 한 사업은 흥하고, 이득을 주로 한 사업은 쇠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나니,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계획한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맛있는 김치를 드리고,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우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지역사회와 보다 가까이에서 함께 성장하는 강남도시가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을 때뿐만 아니라 봉사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면서 회사 구성원들 간의 돈독함이 더욱 강해진 것 같습니다.

SeAH NEWS

2011
NOVEMBER | DECEMBER 2011

VOL. 336

» 세아제강

창립 제51주년 기념식 개최



세아제강은 10월 19일 창립 51주년을 맞이해 서울, 포항을 비롯한 각 사업장별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회령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영환경의 영향으로 실적이 좌우되는 회사가 아닌, 강한 체질을 가진 기업으로 거듭나 성장과 발전을 우리 손으로 주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장기 근속자, 모범 사원, 우수 고객사 시상도 진행됐으며, 사업장마다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행사가 별도 진행됐다.

영업역량 강화과정 실시



세아제강은 인력개발팀의 주관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팀장을 제외한 모든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제3기 영업역량 강화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기와 2기 과정을 통해 세일즈 커뮤

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협상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주안점으로 교육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3기 과정에서는 협상 심화과정 및 제품지식 함양 중심으로 영업 전반에 필요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강관 팀장 워크숍 개최

11월 25일 세아제강은 동대구역 비즈니스 미팅룸에서 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포항공장, 강관2공장, 그리고 본사의 각 팀장들이 워크숍에 참여한 가운데, 김동규 이사의 개회를 시작으로 약 7시간가량 진행됐다. 워크숍에서 팀장들은 2012년 경영 계획과 투자전략을 협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세아제강이 강관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의기투합했다.

포항공장,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 개최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11월 16일과 23일, 양일간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를 실시했다. 사내에서 직접 수확한 모과를 판매하여 모은 돈과, 직원들이 틈틈이 성금한 기금으로 연탄 8,500장을 구매하여 우현동, 송도동, 득량동, 학산동 등에 위치한 소외된 이웃 총 28가구에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 세아베스틸

이영주 차장, 소방행정청장상 수상



11월 9일 군산소방서에서 열린 ‘제4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 이영주 차장이 소방행정청장상을 수상했다. 군산소방서장,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소방 전담 요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 해 동안 각종 화재, 구조, 구급 등 화재 예방에 힘쓴 26명에게 표창장 전달식이 있었다. 아울러 화재를 비롯한 재난 발생이 증가하는 11월 범시민 화재예방과 각종 안전대책을 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의식 강화를 촉구했다.

조선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방문



11월 17일 조선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 및 학생 45명이 세아베스틸을 방문, 생산 현장을 견학했다. 재학생들의 실무 감각과 취업 가치관 형성을 위해 추진된 이번 견학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현장 견학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방문 소감을 전했다.

신입사원들의 사랑의 연탄 배달



세아베스틸 신입사원들이 11월 17, 18일 양일간 군산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신입사원들이 군산지역 총 20세대에 6000장의 연탄을 배달하며 기업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베푸는 활동 취지로 추진됐다. 신흥수 지원본부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원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기업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11년 철강업 환경교류회 개최



세아베스틸에서는 11월 17~18일 1박2일간 ‘2011년 철강업 환경교류회’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 주관으로 세아베스틸이 개최한 이번 철강업 환경교류회에서는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12개 철강업체 환경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환경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회원사 간 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환경교류회는 친환경 경영을 위해 정보 교류를 통한 회원사의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개최



세아베스틸의 노사 임원들은 11월 23~25일 군산시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노사 임원들은 직접 담근 2,500포기의 김치와 라면상자를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250세대에게 전달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는 군산지역 이웃을 위해 세아베스틸이 매년 참여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행사 참가자들은 “세아베스틸의 사랑이 담긴 김치를 먹으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노사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개최



세아특수강은 10월 22일 포항 폴리텍대학교에서 노사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우천의 날씨 속에서도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를 통해 반복된 일상과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노사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유을봉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과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목표한 경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 한국번디

평택공장, 다문화가족 봉사활동 참여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행사에 한국번디 평택공장 직원들이 순조로운 행사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한국번디는 행사에 동행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쌓장 만들기, 고구마와 땅콩 캐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고, 문화해설사와 함께 평택의 관광지를 돌며 지역 고유의 문화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광주공장, 독거노인 가을여행 개최



10월 19일 한국번디 광주공장은 광산구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한 '한국번디와 함께하는 가을여행'을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 독거노인 32명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운남권 노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의 사물놀이와 한춤 공연으로 열린 호응을 얻었다. 한국번디 광주공장은 매년 독거노인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매달 정기 목욕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공장, 노사 Win Win 워크숍 실시



11월 10일 한국번디 광주공장은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삼성리조트에서 노사 Win Win 워크숍을 실시했다. 노사파트너십 3개년 계획대비 실적과 노사발전재단 재정지원사업 결과 보고, 기능직 근로자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노사협의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토론하며 노사가 서로 발전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노사 Win Win 워크숍은 보다 나은 노사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

광주공장, 사내자격증 Level3 1차 사내 검정 실시



11월 18일 한국번디 광주공장은 Level3 1차 사내 검정을 실시했다. 2010년 Level2 합격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검정은 국가인증 자격을 획득하는 자격시험으로 2008년 11월부터 Level1 검정을 시작으로 3년간 진행, 이번 Level3가 최종 과정이다. 한국번디 광주공장은 사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내 실무교육의 기틀을 잡아 지식 근로자의 양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광주공장, 2012년 경영계획 워크숍 실시



한국번디 광주공장은 11월 9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2012년 경영계획 워크숍”을 실시했다. 2011년을 마감하는 실적 발표, 2012년을 대비한 새로운 KPI 계획, 각 팀의 2012년 운영계획 등 2012년에 시행해야 할 전반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했다. 설비종합효율 설정방법에 대한 검토, 사내 인재육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률 향상, KBC 내부 SPEC의 표준화 및 데이터 확보, 노사관계 향상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한편, 노조 임원진도 회의에 참여해 노사 간 의견 교환도 진행됐다.

» 세아에샵

2011 대한용접-접합학회 공로상 수상

11월 1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대한용접-접합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세아에샵 유덕상 대표가 공로상을 받았다. 세아에샵 유덕상 대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용접산업과 관련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에 이르렀다.

자선 바자회 개최



세아에샵은 11월 9, 16일 양일간 본사 대강당에서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지난 8월 건강문제로 잠시 회사를 떠나 요양하고 있는 윤기덕 전 전문직 팀장의 쾌유를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바자회에서는 직원들이 기증한 200여 가지의 소장품 판매 외에 푸드 코너를 운영하며 봉사동아리 세아드림과 여사원들의 놀이마당 등으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기금 마련에 힘썼다.

가을 나들이 개최



세아에샵은 11월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LIG 인재니움 연수원과 진주성에서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가을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첫째 날은 창의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도모하는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둘째 날은 학예사와 함께 진주성을 견학하며 역사를 공부했다. 유덕상 대표는 첫날 특강에서 '고민하고 변신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능력보다 열정과 헌신, 똘똘함을 유지하고 업·고객·마켓을 파악하여 전략적 감수성을 가지고 기민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세아 E&T

플랜트사업부, 세계조선해양박람회 참가



세아 E&T 플랜트사업부 영업팀은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산 해운대 BEXCO에서 열린 세계조선해양박람회(KORMARINE)

에 협력사인 PARAT AS(노르웨이)사와 동반 참가했다. 이 행사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적인 조선 및 해양 관련 전시회로 다양한 조선 관련 업체들에게 세아 E&T를 알릴 수 있었으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터보사업부, 추계 체육대회 개최



세아 E&T 터보사업부는 11월 18일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터보사업부 전 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체육대회는 서춘택 공장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족구, 배구, 축구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를 치르며 직원들 간의 단합을 통해 정신과 육체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세아 M&S

증설투자 추진

세아 M&S는 2012년 5월까지 배소로 처리 능력을 연간 5천t에서 1만 t으로 확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5월부터 외국 기술 용역과 자체 TFT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와 기본 설계를 완료했으며, 11월부터 상세 설계와 설비 발주를 시작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담당자와 관계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저한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폐로물리 생산량을 금년 말까지 연간 3,600t으로 확대하기 위한 투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 세아로지스

무재해 8배 달성



10월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도원에서 세아로지스의 무재해 달성 인증식이 개최됐다. 2005년 9월 5일부터 세아로지스가 전개한 무재해 운동이 2011년 8월 31일로 무재해 8배수(2,080일)를 달성한 데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평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포항운영파트 이태홍 사원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세아로지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우수화물운송사업자 AA등급 취득



세아로지스가 제3회 우수화물운송사업자 승급심사에서 AA등급을 인증 받았다. 2009년 12월 취득한 A등급을 AA등급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8월부터 TFT를 발족하여 공격서를 준비하고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현지 심사를 마쳤다. 그리고 11월 15일 국토해양부의 승급심사를 거쳐 22일 최종 AA등급을 취득했다. 우수화물운송사업자 인증제도는 화물운수업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있다.

» 강남도시가스

창립 제27주년 기념행사 개최



강남도시가스는 11월 21일 본사 강당에서 전 임직원과 고객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임진호 대표는 기념사에서 “지난 27년간 회사가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고객의 안전한 생활과 환경친화적 사회 구현’과 함께 ‘진취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 달성에 임직원 모두가 일제히 노력해준 덕분이었다”며 전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제10회 가스안전 문예대회 실시



강남도시가스는 9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가스공급권역 주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 가스안전 문예대회(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를 실시했다. 가스안전 문예대회는 자율 안전관리 활성화와 앞으로 도시가스의 주 고객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시가스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홍보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문예대회는 초등부와 청소년부로 나누어 대회 취지와 목적을 잘 표현한 22명의 수상자를 선정,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장학 증서를, 은상과 동상 그리고 표어부문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아홀딩스

- 입사**이은영 전략기획팀

세아제강

- 입사**손혜영 포항 업무지원팀 | 이광득 군산 설비팀 | 고미혜 군산 생산2팀 | 유한열 강관2 시험검사반 | 김박영 강관2 생산팀
- 결혼**정요성 본사 판매기획팀 | 이대희 본사 실수요팀 | 박정완 본사 수출2팀 | 이동영 본사 컬러강판영업팀 | 유재관 부산실수요팀 | 박성묵 부산대리점팀
- 출산**이용직 본사 대리점팀 | 한기석 포항 생산1팀 | 유동원 부산대리점팀
- 조의**김홍철 포항 생산1팀(장모) | 오성모 포항 생산1팀(장인) | 최병구 포항 물류팀(모친) | 송상열 포항 생산1팀(모친) | 엄태호 포항 생산1팀(장인) | 최정호 창원 업무출하반(장인) | 오홍종 창원 생산팀(모친) | 이성수 군산 생산2팀(조모)

세아특수강

- 입사**권 안 포항 생산팀 | 김경식 포항 생산팀 | 남진현 포항 생산팀 | 윤경식 경영기획팀
- 결혼**김성민 포항공장 설비팀 | 오병곤 포항공장 생산팀 | 김화진 선재판매팀 | 양성용 선재판매팀
- 출산**김춘기 충주2 설비팀 | 김진호 충주2 설비팀 | 정태화 충주 생산팀 | 임현진 충주2 생산팀
- 조의**최성석 포항 생산팀(조모) | 서덕진 선재판매팀(부친)

세아에샵

- 출산**나희욱 서울사무소 | 허영철 기초연구팀 | 이형준 생산팀
- 조의**백주석 설비관리팀(장인) | 우치용 설비관리팀(부친) | 강지원 생산팀(모친) | 공수복 생산팀(모친)

세아이엔티

- 입사**조태연 터보 태양전지개발팀 | 배상훈 터보 태양전지개발팀
- 출산**이수홍 플랜트 생산팀

세아엠앤에스

- 출산**조성각 영업팀

세아로지스

- 입사**전형섭 SCM기획팀 | 김창섭 TPL팀

강남도시가스

- 출산**이동열 공급지원팀 | 김동욱 고객안전팀

Quiz¹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 주세요.
정답표시는 업서에 해주세요.

원본



문제



SeAH Reader's

디지로그 시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발빠른 기술의 진보와 인간적인 소통의 따뜻함이 만나는 디지로그의 개념이 확산되고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윤경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저희 회사에도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회사 행사 때마다 산에 자주 갑니다. 서울 근교로만 가봤지 다른 지방으로 시도한 적이 없었는데 세아홀딩스의 한라산 등반을 보고 저희 회사 행사에서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강동철 천안 서북구 두정동

맑고 푸른 자연 속에서 한라산 등반을 위해 다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전기영 전북 군산시 소룡동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지난호 퀴즈 정답



*지난 퀴즈 당첨자

윤경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성환 부산 북구 화명동

임마루 전남 목포 산정동

정세나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강동철 천안 서북구 두정동

전기영 전북 군산시 소룡동

김형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김귀녀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

임다미 경기 분당시 수내동

조경희 포항 북구 두호동

*〈세아가족〉사보기자

박승균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이동진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이태원 세아특수강 지원혁신팀(본사)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기획팀

손은숙 세아에샵 경영지원실

김종훈 세아메탈 경영기획팀

이상기 세아이앤티 플랜트사업지원팀

김민구 세아엠앤에스 서울사무소

이근기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지원팀

세아가족 신바람 캠페인 「자신감」 편

수출팀 정 과장은
입버릇처럼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곧 실천하기로 소문나 별명도 ‘긍정왕’입니다.
“아이고, 저 친구 또 시동걸렸구만. 허허”
동료나 후배들도 옆에 있다 보면
어느새 그 에너지가 전해져 힘이 난다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속 불안한 기운들이 푹푹 뭉쳐
당신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하고 외쳐보세요.





새로운 승리를 위해
미래를 개척해나간다!

세아베스틸 재무팀 권정태 차장

지혜와 용기로 뚫을 뭉친 세아의 을지문덕.

그가 있기에 세아의 발걸음은 저돌적이고 강렬하다!